



Downfall Hotel

제작자 : 아루카 (@Laspberry__TRPG)

사방이 막힌 최상층의 호텔. 우리는 몰락의 끝에 갇혀 있습니다.

◈ 시나리오 정보

- ◈ CoC 7th / 현대 (배경 :호텔 최상층) /폐쇄형
- ◈ 권장 인원 : 1~3인 (KPC 포함 가능)
- ◈ 플레이 시간 :**(OR)** 5분~30분 (2인이상 1시간)
- ◈ 플레이어 난이도 :★★★★☆ (무엇을 해도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속지해야하는 개인룰이 있습니다.)
- ◈ 키퍼 난이도 :★★★★☆ (임기응변 및 타임체크, 룰설명, 탐사자가 무엇을 해도 엔딩을 보게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 ◈ 추천 기능 : 자유
- ◈ 추가 기능: 자유
- ◈ 로스트 확률: 있음.
- ◈ 캐릭터 관계 : 어떤 관계든 가능.

시작하기 전에

본 시나리오는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C(탐사자)의 로스트 및 취향을 타는 요소가 있습니다. 재난, 사고, 허무한 사망, 한가지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등등) 요소 다수, 메타 요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나리오를 하시기 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힐링 시나리오라면서 상대를 속여서 데려오는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룰북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하는 키퍼링은 금지합니다. 룰북을 꼭 소지한 상태로 플레이 해주세요.

각 **PC**에 행동으로 얻은 내용에 따라 엔딩이 달라집니다.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스포일러 및 로그 공개는 후세터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주세요. 또한 플텍이 걸려있지 않은 계정으로 본 시나리오의 비난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에 대해 크게 변동 없는 개변은 허용하나 개변 내용을 재배포하지 말아주십시오. 딱 이름만 유지하고 모든 내용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Downfall Hotel의 약칭은 다운홀입니다.

시나리오 개요

1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바다가 붙어 있는 휴양지, 다운폴 호텔에 들어가 체크인 하고 짐을 옮기는 것 까진 좋았습니다. 이제 짐도 다 두었으니 나가려는 순간, 비명소리들과 함께 기괴하게 몸을 틀며 걸어오는 사람들을 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출입구를 막고 들어오는 것을 없앴습니다

옥상은 없고, 창문으로도 뛰어내릴 수 없는 고층의 호텔입니다. 30분만 지나면 막아둔 문도 전부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이하의 내용부터는 시나리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사자로 플레이할 경우
보시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진상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앞뒤관계가 맞지 않는 무한의 시간을 반복하는 곳이니깐요.

원래는 평범한 좀비 아포칼립스의 시초를 보인 차원이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요그소토스의 몸의 일부인 구체가 터지고 자라면서 그 일부가 차원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차원의 열쇠가 되는 자의 잔재가 남은 세계는 똑 하고, 원래 세계와 떨어져 무한의 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30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 흘러버립니다. 모래시계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30분의 시간만 존재하기에 과거라는 것이 무색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이곳에선 30분만에 PC들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탐사자가 한 행위로 인해 그들의 결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세계가 아닌 요그소토스의 잔재가 남은 정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탐사자들은 왜 이 일에 겪고 만 것인가요? 그것은 각자가 얻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이 사태를 맞이하는 사람일 수도, 아니면 아 켄장 꿈이네...하고 꿈일수도, 아니면 정말 잘못 걸려 차원 이동을 당하게 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뒤죽박죽 모든 내용이 이상하게 꼬여 있지만, 모든 것은 탐사자가 결정한 과거로 정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엔딩을 봐도 딱 한 엔딩을 제외하고는 계속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끝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 되살아나서 다른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게 된다면 죽음으로, 혹은 이상한 세계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고자 한다면 죽는 몰락의 장소, 살고자 한다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장소인 바로 다운폴 호텔입니다.

추가 설명

탐사자들에게 딱 엔딩과 도입부분에 쓰인 시간을 제외한 30분 타임어택이라는 점을 알려주되, 엔딩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인 경우 제한 시간이 60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부분은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본 시나리오의 목표는 30분에 똑딱 엔딩을 우선 본다는입니다...) 혹은 기능치 횟수 제한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탐사자는 반복한다는 것을 처음 모든 장소를 붉으로써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를 뒤로 감기해버리는 것처럼 돌아갔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아차리는 것이죠. 엔딩과 관련이 있는 물품/행동은 박스 안으로 표시합니다.

각각 다른 엔딩을 보는 것이 아닌 모아진 물품/행동의 총합으로 엔딩이 정해집니다. 각 방마다 초록색으로 된 글씨들 중 1가지의 내용만 볼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개인당 1개가 아닌 총합 1가지입니다. 탐사자가

해당 조건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한 번 언급해주세요.) | 행운(어려움) | 판정을 사용한다면 1가지 더 볼 수 있으나 세션 내 3번만 쓸 수 있다고 해주세요. (인원당 3번입니다.)

3회차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버튼'이라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제공받습니다. 해당 버튼을 발견하고 사용하면 [ED9]입니다. 정말로 잘못걸려 차원이동을 한 사람이 되겠군요!

탐사자에게는 직감이라는 추가 기능이 생깁니다. 키워드 연결식 증거를 얻었을 경우 쓸 수 있는 것으로, 키워드 연결식 증거를 얻을 시 탐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원이 3명일 경우 각각 2회, 2인일 경우 각각 3회) 플레이어가 1인일 경우 사용횟수가 1D2+4회로 정해집니다.

(예시:토마토 파스타를 하기 위해 토마토를 구해라하는 증거를 얻음 > 다른 방에서 해당 증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직감을 사용 > 성공 시 해당 방의 어느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얻음)
(사용하는 위치 : '안에는 [토마토보관통]와 [서랍] 그리고 [TV]가 보입니다.'예시 지문과 같은 []칸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치는 50으로

범죄직, 사냥꾼, 경찰과 같은 감에 의존하는 직종이면 +20보정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예민한 편이면 +10 보정을 받습니다.
대체로 둔하거나 무감각한 편이면 수치가 -10 내려갑니다.
그 외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추가/감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탐사자에게는 본능이라는 추가 기능이 생깁니다. 키워드를 선택하기 전이나, 키워드를 선택해서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치입니다.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원이 3명일 경우 각각 1D2회, 2인일 경우 각각 2회) 플레이어가 1인일 경우 사용횟수가 1D2+2회로 추가됩니다.

(예시:[서랍]으로 이동한 후 혹시 몰라 본능을 사용한다 > 서랍 뒤 숨겨진 트랩을 찾아낸다.)
(사용하는 위치 : []칸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키워드 선택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치는 50으로

범죄직, 경찰, 노숙자와 같은 생존에 예민한 직종이면 +20보정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예민한 편이면 +10 보정을 받습니다.
대체로 둔하거나 무감각한 편이면 수치가 -10 내려갑니다.
그 외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추가/감소 받을 수 있습니다.

탐사자가 기존에 쓰여있는기능치 외 다른 기능치로 판정하고 싶다고 할 경우 자유롭게 바꿔주세요.

탐사자가 무엇을 해도 OK 하셔도 됩니다. 만약 엔딩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창조 엔딩을 내셔도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든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해주세요! 엔딩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할 지 모를 땐 ED ???식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Q. 여길 싹다 불태워요 > 함도전해보시죠

Q. 아몰라 못내려간다고 해도 전 뛰쳐내릴래요 > 함도전해보시죠

Q. 벽을 뚫어버려요 > 흥드즈흥드스즈

Q. 아자토스를 소환해볼래요 > 조건과 주문만 안다면 당신도 사교도입니다.

Q. 전 이능력자이니까 차원이동술을 사용합니다. > Come On (KP분의 창조엔딩이 필수입니다. 탐사자가 요그소토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 판단한다면 [ED9]로 넘어가주세요.)

Q. 저는 신입입니다. >이계신과 맞다이를 즐겨보세요. (KP분의 창조엔딩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예시용으로 탐사자에게 줄 정보입니다.

::탐사자에게 제공하는 룰 정보::

딱 엔딩과 도입부분에 쓰인 시간을 제외한 **30분** 타임어택을 합니다. 이때, **2인일** 경우 제한 시간이 **60분**으로 늘어납니다.

인원 당 각각 다른 엔딩을 보는 것이 아닌 모아진 물품/행동의 총합으로 엔딩이 정해집니다. 각 방마다 정해진 물품/행동 중 **1가지**의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개인당 **1개**가 아닌 총합 **1가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KP**에게 문의해주세요.)

| **행운(어려움)** | 판정을 사용한다면 **1**가지 더 볼 수 있으나 세션 내 **3**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인원당 **3**번입니다.)

직감/본능이라는 능력치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탐사자에게는 직감이라는 추가 기능이 생깁니다. 키워드 연결식 증거를 얻었을 경우 쓸 수 있는 것으로, 키워드 연결식 증거를 얻을 시 탐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션 내 **2~3회** 사용할 수 있으며(최대인원이 **4명일** 경우 **2회**, 그 이하일 경우 **3회**) 플레이어가 **1인일** 경우 사용횟수가 **1D3+3회**로 추가됩니다.

(예시:토마토 파스타를 하기 위해 토마토를 구해라하는 증거를 얻음 > 다른 방에서 해당 증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직감을 사용 > 성공 시 해당 방의 어느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얻음)

(사용하는 위치 : ‘안에는 **[토마토보관통]**와 **[서랍]** 그리고 **[TV]**가 보입니다.’예시 지문과 같은 **[]**칸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치는 **50**으로

범죄직, 사냥꾼, 경찰과 같은 감에 의존하는 직종이면 **+20**보정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예민한 편이면 **+10** 보정을 받습니다.

대체로 둔하거나 무감각한 편이면 수치가 **-10** 내려갑니다.

그 외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추가/감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탐사자에게는 본능이라는 추가 기능이 생깁니다. 키워드를 선택하기 전이나, 키워드를 선택해서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치입니다.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원이 **3명일** 경우 각각 **1D2회**, **2인일** 경우 각각 **2회**) 플레이어가 **1인일** 경우 사용횟수가 **1D2+2회**로 추가됩니다.

(예시:[서랍]으로 이동한 후 혹시 몰라 본능을 사용한다 > 서랍 뒤 숨겨진 트랩을 찾아낸다.)

(사용하는 위치 : **[]**칸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키워드 선택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치는 **50**으로

범죄직, 경찰, 노숙자와 같은 생존에 예민한 직종이면 **+20**보정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예민한 편이면 **+10** 보정을 받습니다.

대체로 둔하거나 무감각한 편이면 수치가 **-10** 내려갑니다.

그 외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추가/감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1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바다가 붙어 있는 휴양지, 다운폴 호텔에 들어가 체크인하고 짐을 옮기는 것 까진 좋았습니다. 이제 짐도 다 두었으니 나가려는 순간, 비명소리들과 함께 기괴하게 몸을 틀며 걸어오는 사람들을 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출입구를 막고 들어오는 것을 없앴습니다

옥상은 없고, 창문으로도 뛰어내릴 수 없는 고층의 호텔입니다. 30분만 지나면 막아둔 문도 전부 무너질 겁니다. **[SAN - 1/1D3] (2회차부터는 이성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합니다! 가만히 죽을 순 없으니 말입니다!

▶ 탐사자가 **움직일 의지따위 보이지 않는다**면 **[ED1]**입니다.

▶ 탐사자가 열리지도 않는 **창문으로 뒤흔대 내리면** **[ED2]**입니다.

▶ 탐사자가 소지품의 **라이터로 최상층을 태워버리면** **[ED3]**입니다. 이때 소지품에 없으면 해당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진짜로 태운다면... | 중화기 | 판정을 돌리게 합시다. 세상에 쉬운 화재는 없습니다.

▶ 탐사자가 **벽을 부순다면** **[ED4]**입니다.

▶ 탐사자가 **좀비와 이기고자 전투를 시도한다면** 성공 시 **[ED47]**입니다. 실패 시 **[ED48]**입니다. 좀비 수는 **1인일 경우 2D6+3**, 다인일 경우 **4D6+3**으로 정해주세요.

▶ 탐사자가 호텔을 폭파해버릴 경우 **[포격]** 기능치에 성공하면 **[ED 49]**입니다. 세상에 쉬운 폭발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최상층인 57층에 맞춰 **[5701호 / 5702호 / 5703호 / 5704호 / 5705호 / 5706호 / 5707호 / 5708호 / 5709호 / 5710호 / 5711호, 옥상?]**이 있습니다. 셔터를 내려서 5712호부터 시작해 23호로 이어진 곳은 막혀 있습니다.

▶ 탐사자가 **5712호~23호쪽의 벽을 부순다면 [ED6]**입니다.

▶ 이때 **2**회차 탐사자라면 눈 앞에서 비디오마냥 보이는 장면이 뒤로가기 하는 듯 과거에 있던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잠깐 왜 기억하지 못한거지...

▶ 5701 호

5701호라고 쓰여 있는 팻말이 있는 방입니다. 열어보면 1인실로 보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눈에 들어오네요. 안에는 **[캐리어]**와 **[사용하지 않은 비닐에 쌓인 컵]**. 그리고 **[침대]**가 보입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의 잠금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습니다. 열어도 볼 게 딱히 없을 거 같네요.

→ 캐리어

검정색 평범한 캐리어 입니다. **캐리어를 열어 확인**해보면 안에 든 것은... 놀랍게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재난 응급키트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라면이나 통조림 등등 다양한 간편 음식들, 주사기 또한 들어있네요. 이 사람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호텔에서 뜬금없는 걸 챙긴 걸까요? 우리 상태를 보면 이런 위급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챙긴 것일까요....?

▶ 해당 조건에서 딱히 다른 정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ED 16]**로 진행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비닐에 쌓인 컵

비닐에 쌓여 있는 컵입니다. 안을 까서 확인해보면 안에 들어있는 건 캡슐입니다. **캡슐을 먹을 경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캡슐을 먹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ED5]**로 넘어갑니다.

→ 침대

침대는 평범합니다. 다만 다급하게 바깥으로 나간 거인지 이불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문이 보입니다.

신문을 읽어볼 경우, 제일 큰 헤드라인에서는 ‘방사능이 퍼져 세계적으로 문제’란 글이 보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테러리스트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방사능이 퍼져 곧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선 다운폴 호텔 아래 지하에 있는 방공호를 이용하라는 글 또한 쓰여있습니다.

이때, 방독면은 꼭 쓰고 출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지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길 바라야할 거 같네요.

▶ 내려갈 곳도, 방독면도 찾지 못하면 **[ED 25]**, 방독면만 찾을 경우 **[ED 26]**, 통로만 찾을 경우 **[ED 27]**, 전부 찾을 경우 **[ED 28]** 입니다.

▶ 5702 호

5702호라고 쓰여 있는 팻말이 있는 방입니다. 열어보면 1인실로 보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눈에 들어오네요. 안에는 **【종이다발】**과 **【사용감이 있는 냄비】**. 그리고 **【커튼】**이 보입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는 잠금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습니다. 열어도 볼 게 딱히 없을 거 같네요. 침대는 우웁...왜 썩어있죠?

→ 종이다발

종이다발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읽어보기엔... 너무 많은 정보로 하나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쓰여있는 것은 **세계멸망**, **바이러스**, **꿈** 세가지가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 탐사자당 1개가 아닌 탐사자들의 총합으로 하나만 뺄 수 있습니다. 만약 어기고 2개 이상을 뺏으면 바로 **[ED7]**입니다.

세계멸망

세계는 갑자기 멸망하였다... 사실 그럴리가 없잖아. 원래부터 망한 세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거야? 우리는 그저 지구에 버려진 다른 행성에서 사는 인류일 뿐이라고. 돌아가고 싶다면 **【우주선 조종 장치】**를 찾아 멍청아! 어딘가 대통령대롱 매달려 있을테니까!

바이러스

좀비들이 가득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선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백신의 재료】**가 되는 물품이 있는 다운폴 호텔로 이동해라. 그리고 생존하기를 바란다. 가방같은 담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본다면 무언가 건져낼 수 있겠지.

꿈

루시드드림이란 자각몽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꿈이 된다. 작은 수정구슬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

- ▶ 세계멸망의 조건을 달성할 경우 **[ED13]**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ED14]**로 진행됩니다.
- ▶ 바이러스의 조건을 달성할 경우 **[ED15]**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ED16]**로 진행됩니다.
- ▶ 꿈의 조건을 달성할 경우 **[ED17]**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ED18]**로 진행됩니다.

→ 사용감이 있는 냄비

사용감이 있는 냄비입니다. 최소 5년은 쓴거 같습니다. 이리저리 탄 부분이 남아 있고,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눌러붙어있는 **종이**가 하나 보입니다.

종이

그쪽 일은 잘 되어가나요? 그들이 알아본다면 곤란합니다. 오... 근데 이미 이 종이를 잃어버려 이 사람들이 보고 말았네요. 이번 엔딩은 어떻게 낼 겁니까?

다 읽으면 이성 판정입니다. **[SAN - 1/1D3]** 이후 화면이 암전됩니다.

다시 눈을 뜨면 **【흰 벽지】**와 책장, **【문】**과 **【인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지만, 호텔의 풍경이 아닌 넓은 초원만 있는 곳이네요. 갑작스럽게 이런 곳에 오다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SAN - 1/1D3]**

▶ 흰 벽지

흰 벽지에는 검은 글씨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자에겐 그만큼 대우를 드리겠습니다’. 산책을 안 한 인형은 누구인가요?’

▶ 문

문에는 1번부터 시작해 5번까지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총 기회는 1번뿐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 인형

인형들이 5개 놓여있습니다. 각각의 인형은 나열되어 서 있으며 각자머리위에 문구가 하나씩 쓰여 있습니다.

인형 1 > 나는 오늘 인형 2와 함께 바깥에 나와서 걸었다녔어.

인형 2 > 나는 인형 1과 걸어도니지 않았어. 나는 인형 4와 시간을 보냈거든.

인형 3 > 나는 인형 5와 있었어. 같이 걸어도닌 편이지.

인형 4 > 나는 인형 2와 함께 있었어. 인형 5와는 같이 산책을 했지.

인형 5 > 나는 인형 4와 있었지만 3과는 있지 않았어.

흰 벽지에 [관찰(어려움)] 혹은 [지능(어려움)]을 성공하면 벽에 희미하게 색차이가 나는 글씨가 보입니다.

‘인형은 움직이지 못한다.’

전원이라는 답을 할 경우 [ED29]

그 외 다른 대답을 한 경우 [ED30]

→ 커튼

커튼 뒤에는 알 수 없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본다면, 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사라지다가 계속 나타납니다. 말을 걸거나 계속 쳐다보면 [ED21]입니다.

▶ 5703 호

5703호인 것으로 보이는 방입니다. 펫말은 존재하지 않네요. 열어보면 4인실로 보입니다. 나름 여러 사람이 보낼 수 있도록 방이 안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안에는 [방]과 [화장실], [냉장고] 그리고 [스탠드]가 보입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에는 수상하게 무언가 적혀 있네요. 읽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의자에 [크툴루 신화] 기능을 성공하면 이것이 아자토스를 강림하는 주문(252p)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아자토스를 이것을 이용해 강림할 경우 [ED8]입니다. (아자토스를 소환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어도 아자토스를 소환하는 주문은 따로 존재하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

안쪽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누워서 쉴 수 있는 이불들이 가득 들어있네요. 이불 사이에서 쿠션 하나가 보입니다.

쿠션을 만져보면 질감이 좀 독특하네요. 안에 뭔가 든거 같습니다. 꺼내 확인하면 ‘일어나’라고 쓰인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언제까지 자고만 있을거야. 일어나야지. 자고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주변에서 도는 거 알아? 그때 그렇게 보내면 안되었던 건데... 미안해. 이제 그만 일어나.

▶ 이때, 일어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나려고 하면 [ED12]입니다.

→ 화장실

화장실은 쉽게 문이 열립니다. 평범한 세면대와 욕조, 변기가 보입니다. [관찰] 판정에 성공하면 세면대 밑부분에서 수상한 봉지 하나가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봉지를 열어 향을 맡아볼 경우 [ED 24]로 넘어갑니다.

→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향을 확인해볼려고 해도 뚜껑이 닫아져 있어서 무슨 향이 나지는 않네요. [독극물/위험물] 기능치가 있다면 폭발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AN - 1/1D3] 뚜껑을 열어보면 [ED31] 으로 넘어갑니다.

→ 스탠드

스탠드를 보면 평범합니다. [기계수리나 관찰]에 성공하면... 전구 쪽에 카메라와 비슷한 렌즈 하나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계수리로 성공할 경우 이것이 초소형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렌즈를 확인한 경우 [ED39]입니다.

▶ 5704 호

5704호라고 쓰인 팻말이 달린 방입니다. 열어보면 2인실로 보입니다. 1인실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많은 인원수가 지내기엔 어려워 보이네요. 안에는 [탁자]와 [서랍], [편지지] 그리고 [창문]이 보입니다. 나머진 알아보기 어려워 보이네요.

→ 탁자

탁자 위에는 오래 되어보인 종이가 있습니다. 양피지 같기도 한데... 접혀 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 경우 안에 어떠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잘려 있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고 전부인 자를 소환하기 위해선 특별한 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높이는 10M 이상이어야한다. ...
... 그리고 주문을 외치면 된다.’

▶ 해당 종이를 보면 주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서랍

서랍에는 검고 검은 내부가 보입니다.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매우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을 꺼내게 됩니다. [관찰(어려움), 천문학]에 성공하면 이것이 우주와 비슷한 풍경이 서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당신을 부르는 거 같기도하네요.

| 천문학 |으로 판정 성공할 시 거짓이 아닌 진짜 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AN - 1/1D3] 무언가 당신을 부르는 거 같기도하네요.

▶ 서랍에 몸을 가까이한 경우 [ED40]입니다.

→ 편지지

편지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언가 쓰인 편지들도 보입니다. 대부분 안부인사나 가끔은 청구서가 있기도 하고... 음? 실험일지도 보이는 것도 존재합니다.

실험일지를 읽을 경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자 실험체들이 해당 실험에 참가했다. 이번 실험에 성공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반대로 실패하면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지. 생각해보니 실험체들에게 해독제를 주기는 했나? 뭐 알아서 하겠지. 그들이 버튼을 **5 8 7** 순서에 맞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 창문

창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바깥에서 구경했을때는 호화로운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보이는 바깥은 불타고 사라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그순간 당신의 눈앞에 커다란 불이 붙은 돌이 달려옵니다. 한 명이라도 행운 판정에 실패 시 [ED41]입니다.

▶ 5705 호

5705호라고 쓰인 팻말이 달린 방입니다. 열어보면 5인실로 보입니다. 여러 명이 생활하기 편하게 방도 1개가 딸려 있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전자레인지], [전등] 그리고 [신발장]이 보입니다. 나머지 알아보기 어려워보이네요. 방이나 화장실은 어째서인지 열리지 않습니다. 강제로 열 경우 바로 [ED10]으로 넘어갑니다.

→ 침대

(3회차 전)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침대일 뿐입니다.

(3회차부터)

침대를 걷어보면 수상한 버튼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버튼만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버튼'이라고 쓰여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ED9]입니다.

→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내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어서 확인해보면, 검은 내부만 보입니다.그런데 조금씩 검은 부분이 움직입니다. 설마 이거 거대한 눈인가요. [SAN - 1/1D5] 전자레인지 구석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꺼낼려면 검은 부분과 조금이라도 닿는 위치네요. 잠을 경우 열쇠는 구했지만 불길한 것에 닿은 듯 오싹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SAN - 1/1D10] (옥상의 열쇠입니다.)

→ 전등

전등 위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열쇠에는 '5709호의 잠긴 서랍에'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 신발장

신발장에는 칸이 나뉘져 있지 않고 **사람 한 명**이 묶여져 있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은 불가능해보이네요. 묶인 줄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작게 '제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들고 다녀야해서 패널티 다이스가 생깁니다.

▶ 5706 호

5706호이라고 생각되는 방입니다. 이 방은 문이 없습니다. 문만 똑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는 4인실로, 안에는 **[라디오]**와 **[카드]**, **[바닥]**, **[베란다]**가 보입니다. 나머진 알아보기 어려워보이네요. 방이나 화장실은 무거운 물품들에 깔려 열 수 없어보입니다.

→ 라디오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며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듣기 | 판정에 성공]**하면 '좀비가 발생된지 일주일, 다행이게도 정부에서는 모든 좀비를 찾아내어 한 호텔에 묶어두었습니다. 해당 호텔은 폐쇄중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노이즈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에서 딱히 다른 정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ED 42]**로 진행됩니다. **5701**호의 캐리어를 먼저 봤어도 해당 내용으로 엔딩을 갱신시켜주세요.

→ 카드

카드는 누군가 휘갈겨 쓴 듯 읽기 어려운 글씨체로 적혀 있습니다. **[관찰 | 에 성공]**하면 어떤 안전수칙이라 누군가 적어놓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본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수칙을 따라줘.

1. 커튼에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마. 그것은 아는 척을 한다면 끈질기게 찾아올거야.
2. 5710호로 가면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추천해줘서 왔다고 하면 네게 무슨 역할을 줄거야. 딱히 할 말 없는데 찾아가지 않기를 바랄게. 그 사람 고약하거든.
3. 5708호 가본적 있어? 거기에 잘 본다면 위로 올라가는 문 하나가 보일거야. 거길 열면 58층이라는 글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그걸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 이 호텔을 나갈 수 있어.
4. 바깥에서 들리는 괴물 소리는 무시하는 게 좋아. 막아뒀으면 다행이지만 곧 그들이 들어올거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끝이니깐 그냥 포기하고 운명을 맞이하는 게 좋을거야.

→ 바닥

바닥에는 탐사자가 가져온 짐들이 있습니다. 어라... 이거 문을 막는 용도로 써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안을 자세히 보면 고열이나 두통에 먹는 해열제가 들어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을 시** 두통과 고열이 몰려오며 **[ED22]**로 넘어갑니다.

→ 베란다

베란다에는 큰 식물을 키우는 듯 식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식물이 수상해보이는데...
[관찰]에 성공하면 이거... 사람입니다. 변장을 한 걸까요. 좀 처절하게 보던 그 사람은 탐사자를 보고
넘어가달라고 합니다.

▶ 안 넘어갈 경우 [ED11]입니다.

▶ 넘어갈 경우 [ED23]입니다.

▶ 5707 호

5707호라고 적혀있는 방입니다. 해당 방은 3인실로, 아담하지만 아기자기하게 누군가 꾸며둔 거
같습니다. 호텔인데 말이죠. [달력]과 [쿠션으로 쌓인 침대], [선물상자]가 보입니다.

→ 달력

누군가 기록을 해둔 듯 X자 표가 많습니다. O라고 쓰여있는 곳은 오늘의 날짜군요. 종이가 너털너털한
것이 사용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최근의 날짜인데 이렇게 사용감이 많다니... 이상하네요. [자세히
보거나 |관찰]에 성공하면 뒷장에 '중요한 내용은 들키면 곤란하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적어두었어. 물과
비슷한 게 있다면 좋겠지.'라고 적힌 게 보입니다.

[탈취제로 달력의 뒤를 적셔보거나 비슷한 것으로 가볍게 적셔두면] 숨겨진 글씨가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아무렇게나 쓰면 안됨. 그곳의 제일 높은 회장의 이름과 싸인을 사용하도록. 이름은 P.AFS'
아래에는 싸인이 그려져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는 달력이 찢어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쿠션으로 쌓인 침대

쿠션으로 쌓인 침대는 마치 쿠션을 치우지 않는다면 앉거나 누워있기도 힘들게 있습니다. 쿠션의 종류는
다양하네요.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캐릭터 상품을 모델로 한 모양또한 존재합니다. 침대는 매우
평범한 호텔식 침대입니다. [관찰]에 성공하면 [작은 수정구슬]이 쿠션 사이로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선물상자

선물상자는 가득 쌓여서 놓여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면 보이는 것은 다양한 장난감들이군요. 그 외
그냥 비어있는 상자들도 많습니다. [관찰]에 성공하면 안에서 주사기나 약품이 담겨 있는 [백신의 재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 5708 호

5708호는 문을 열면 방과는 먼 모양새때문인지 물건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보이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문]과 방 끝에 있는 [키패드], [물통 하나] 뿐입니다.

→ 위로 올라가는 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버튼은 위로 올라가는 버튼만 남아있습니다. **타고올라갈 경우 [ED19]** 입니다.

→ 키패드

키패드만 덜렁 있는 곳입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열린다고 하네요. **5 8 7을 입력**한 경우 어딘가로 이동 가능한 비행선이 보입니다. 이것을 타고 탈출이 가능합니다.

▶ 해독제가 있을 경우 **[ED34]**입니다.

▶ 해독제가 없을 경우 **[ED35]**입니다.

→ 물통 하나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물통입니다. 사용감은 없는 듯 뜯은 흔적도 있지 않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실 경우 [ED36]** 로 넘어갑니다.

▶ 5709 호

5709호이라고 적힌 문을 열면 6인실이 보입니다. 넓어서 다양한 물건들과 방이 보입니다. 안에서 볼 수 있는건 [서랍]과 [바닥 마법진], [생방송이 나오는 TV], [책장]이 보입니다. 나머지 물품들은 심하게 부숴지거나 망가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랍

잠겨있는 서랍입니다. (열쇠는 **5705**호에 있습니다.) 서랍을 열 경우 안에는 수많은 **방독면**이 놓여있습니다.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 이런 물건들을 가득 모아둔 걸까요?

→ 바닥 마법진

마법진이 그려진 바닥입니다. 무언가 쓰여있지만 읽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런 마법진들은 뭔가를 소환하거나 무언가를 바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컬트] 기능치에 성공하면 글씨 중 '무언가를 바쳐 원함을 취하라'라고 쓰여있습니다.

▶ 소원을 빌 경우 **[ED51]**입니다.

→ 생방송이 나오는 TV

생방송이 나오는 TV 내에서는 위급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 일상과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슬은 쓰지 않는다면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어딘가에 덮어둔 곳에** 보관해야합니다. 이유는 빛이 반사되어 잘못된 곳에 열을 가해 집이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 책장

책장은 평범하게 책이 꽂아져 있습니다. 다양한 책의 종류가 있기 보다는 한가지의 종류뿐이네요.
그러니까... 총의 기원이나 총기류의 대한 내용들뿐입니다. 어쨌든 조금 붕 떠있는데 이거 혹시...

자세히 볼 경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며 그 안에 있는 것은 수많은 총기류입니다. 어떤 것은 사용한 흔적이 있고 어떤 것은 사용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비밀기지 같네요.

▶ 자세히 볼 경우 바로 [ED50]으로 진행합니다.

▶ 5710 호

5710호라고 적힌 문을 열면 단출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방에 비해 세로로 길어서 복도같기도 하네요.
그 끝에는 앉아있는 [사람 한 명]과 [큰 상자], [계약서]가 보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탐사자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투명취급을 하네요.

→ 사람 한 명

경비 옷을 입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생긴것을 보면 딱히 사람같다고 하긴 어려운 생김새네요.
입이 툭 튀어나와있고 피부색이 하얀것을 넘어 새파랗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눈으로 흘끔 보다가 마네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말을 걸어보면 당신을 쳐다봅니다.**

▶ 일자리를 추천받았다고 말을 꺼내면 [ED37]입니다.

▶ 그 외 다른 말을 할 경우 [ED38]입니다.

→ 큰 상자

큰 상자를 열어보면 큰 구멍이 뚫어져 있는 **통로**가 보입니다. 생긴 것을 보면 미끄럼틀처럼 내려가서
아래의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 거 같네요. (내려갈 경우 조기엔딩이 됩니다.)

→ 계약서

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매우 고급의 재질에 금박까지 되어있는 계약서네요.

자세히 보면 글씨는 읽을 수 없어보이지만 성명과 싸인하는 란이 보입니다.

▶ 달력에 본 싸인과 이름을 적을 경우 [ED43]입니다.

▶ 그 외 다른 것을 적을 경우 [ED44]입니다.

▶ 5711 호

5711호..일 겁니다. 팻말에는 5705호라고 쓰여있지만 위치만 보면 딱 5711호에 가깝거든요. 8인실이라서
매우 넓습니다. 안에는 [폭죽]과 [모빌], [장롱], [탈취제], **[핸드아웃]**이 보입니다.

→ 폭죽

폭죽이라고 쓰여있지만, 생긴 것은 폭죽의 모양보다는 정말 무언가 터트리기에 좋아보이게 생긴 폭죽입니다. 아래에는 라이터가 있으며, 폭죽들은 아주 사용하기 좋게 태워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좀 나겠네요.

- ▶ 탈취제를 뿌리고 태울 경우 [ED45]입니다.
- ▶ 그냥 태울 경우 [ED46]입니다.

→ 모빌

모빌은 대롱대롱 물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장난감이 유일하게 이곳에서 제일 멀쩡하게 느껴집니다. **| 관찰 | 판정에 성공**하면 우주선 조종 장치가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여운 모빌 장난감 같아서 알아차리긴 어려웠네요.

→ 장롱

장롱은 평범합니다. 옷이 들어있고 물품이 있다는 건 평범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자세히 보면** 해독제라고 적혀 있는 해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탈취제

평범한 탈취제입니다. 무언가에 뿌려 냄새를 가리거나 적셔볼 수도 있게 물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 **핸드아웃**

바로 이창을 핸드아웃으로 보여주세요.

탐사자님!!!!!! 지금 CoC에서 계속 세션하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탁 30분 뒤에 잡아두었는데 빨리 안 오시면 이 탁 터져요.... GM이 탐사자님이라고요 ㅠㅜ
저희 시트 다 올려두고 손가락 빨고 있어요... 님 언제옴...? 진짜 우리탁 사라짐?

아맞다. 30분(혹은 남은 시간) 뒤 딱 세션가야하는 걸 당신은 잊었습니다. 다인으로 오셨다면 각자 다른 탁의 GM이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빨리 30분(혹은 남은 시간) 안에 이 시나리오 끝낸다!!! 아좌!

핸드아웃을 본 순간부터 전원 캐릭터가 아닌 오너로 롤플하게 됩니다. 이때 엔딩은 어느 엔딩을 충족해도 **[ED 20]**으로 고정됩니다.

(추천 BGM :: <https://youtu.be/bHxqcwRwt80>)

▶ 옥상?

맨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비상용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보입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어 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근력(극단)|** 혹은 **|열쇠공| 판정**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그 아래는 하늘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청소도구나 그런 게 보이지만... 딱히 불만한 건 아닙니다. 하긴 여긴 잠금장치가 걸려 있던 장소였잖아요.

▶ 여기서 뛰어내릴 경우 **[ED 32]**

▶ 아자토스를 소환할 경우 **[ED 8]**

▶ 요그소토스를 소환할 경우 [ED 33]

엔딩

ED 1. 돌석상

조건 : 탐사자가 움직일 의지따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노력해봤자 뭐하겠어요. 이곳은 호텔의 최상층이라고요. 이런 행위는 잠시 시간을 버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해볼까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느라 힘들었어요.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흐르자 우지끈, 그어어... 콧소리!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납니다.

[보상]

없음

ED 2. 하강

조건 : 탐사자가 열리지도 않는 창문으로 뚫쳐 내린다.

안되는 창문을 광광 쳐서 어떻게든 열어버립니다. 유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깨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뚫어내린 후 계획한 게 있나요? 설마 뚫어내린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거라 믿은 건 아니죠? 우리 이대로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탐사자가 낙하산을 가지고 내렸을 경우)

안되는 창문을 광광 쳐서 어떻게든 열어버립니다. 유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깨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뚫어내린 후 계획한 게 있나요? 아! 멋지게 낙하산을 가지고 내렸군요. 여행온 자리에서 낙하산을 챙기고 다니는 탐사자는 그 어디에서도 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지금은 평범한 곳이었다면요.

내려가니까 보이는 것은 좀비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아... 우리 이대로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보상]

없음

낙하산을 가졌을 경우 낙하산

ED 3. 내가 태우고 싶었던건 이 썩어빠진 세상이란다.

조건 : 탐사자가 소지품의 라이터로 최상층을 태워버림

라이터를 잘 이용해서 최상층에 불을 냅니다. 세상에 쉬운 화재는 없지만, 굳은 의지와 태움에 대한 희망, 그리고 운빨이 당신을 도왔습니다. 활활타는 방을 보면서 탐사자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이곳은 창문도 안 열리는 최상층인데... 뭐... 태움은 예술이니 창작활동을 했다고 통칩시다. 언제 이렇게 태워보겠어요?

문이 열리면서 모두가 활활탐니다. 아아— 그래... 알겠다. 이 세계...

[보상]

없음(혹은 가오)

ED 4. 박치기

조건 : 탐사자가 아무 벽을 부순다

아무 벽에다가 몸을 부딪쳐 벽에 금을 냅니다. 우지끈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드드드... 울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잠깐, 벽은 금만 났는데 왜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건가요?

그 생각과 함께 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텔은 한 층 한 층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벽만 박치기 했을 뿐인데...? 단지 벽에 몸통박치기 했을 뿐인데...

[보상]

없음

ED 5. 실험

조건 : 탐사자가 5701호에 있는 캡슐을 삼켰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기억났습니다. 세상이 점차 발전하면서 빈부격차는 커져갔습니다. 그로 인한 인권적 문제는 뒤로 밀리게 되고 큰 실험을 하는 것에도 사람을 갈아넣어버리기 시작했죠. 이곳은 실험을 위한 하나의 세트장인 겁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 기업에서는 탐사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기억을 소거하고 다시 실험하고 다시 소거하고 다시 실험하고... 이번이 몇 번째였지요? 이렇게 길게 할 거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기억 재생 캡슐은 먹지 말라고 당부 했는데 대체 몇 번이나 말했냐고 스피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곤 다시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과르릉,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암전합니다.

[보상]

없음

ED 6. 좀비소굴

조건 : 탐사자가 5712호~ 23호쪽의 벽을 부순다

반대편은 관찰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힘을 주고 반대편 벽에 힘을 주어 벽을 부숴봅니다. 힘들게 뚫어낸 벽 너머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은 기괴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공간이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너머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보상]
없음

ED 7. 세계선 혼동

조건 : 5702호의 종이다발 중 3개 중 2개를 골랐다. 혹은 해결한 일이 없이 서로 다른 엔딩 선택지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증거만 4개 이상 얻었다.

어라? 이 내용이 맞나요? 아니 이 내용이 맞는 거 같은데... 내용이 이리저리 꼬여버리고 맙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망한 곳이었죠? 아니 꿈인가... 아니 좀비 바이러스인데... 아니 여기 차원 이동...아니... 이게 뭐죠?

이상합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박혀버린 거 같아요. 온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쑤셔들어갑니다.
그렇게 머리가 터지기 직전일때 웅성이는 소리가 나더니
‘딱’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보상]
없음

ED 8. 신의 강림

조건 : 아자토스를 소환하다.

제물을 바치고 주문을 외치자 주변이 무너지듯 움직이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존재가 나타납니다.
부글부글거리는 형체와 사방으로 나뉘지는 불길한 기운이 모든 것을 가득 채워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존재가 당신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SAN - 1D10/1D100]**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 먼 건물의 형체 나무 돌 새 당신의 팔 손 복부 심장 머리를 넘어 모든 것을 삼키고 지나가버립니다.

[보상]
없음

ED 9. 귀환

조건 : 원래대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고 시간이 지나면 바깥의 소란이 잠잠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 역재생되는 듯 흘러지나갑니다. 마지막 장면이 짐을 내려두고 바깥으로 나가기 전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실감이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몰라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러온 사람만 평범하게 행동하고 그 누구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돌아온 걸까?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휴양지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왔을 때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서 최상층에 갇혀버렸다던가 하는 거 말이죠!
딱히 나지 않는다면 뭐 어찌되든 좋은 거 아닐까요.

[보상]

PC 생환 [1D15]

차원을 빠져 나오면서 PC들의 기억은 소멸했습니다.

ED 10. 거대한 □□

조건 : 5705호의 화장실 혹은 방문을 연다.

열리지 않은 문을 강제로 열어봅니다. 뻥뻥한 것이 잘 열리지 않지만 힘을 강하게 주니 그대로 문이 나가떨어져 버리군요. 그리고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수십개의 구멍입니다. 아니, 구멍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입이라고 해야겠네요. 입들은 당신을 향해 게걸스럽게 혀를 내밀니다.

뻥뻥하게 굳은 다리와 멈춰버린 사고. 그 사이에 혀는 문을 넘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어 뼈가 뭉개지는 소리가 납니다.

[보상]

없음

ED 11. 청구비 요구

조건 : 5706호의 베란다에서 무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행동하자, 주변에서 야유가 들려옵니다. ‘너희 방송을 무시하는거냐??’ ‘이번에 생방송 예능 프로그램 있으니 적당히 눈치 봐줘야하는 게 아니냐?’ 등등... 아니 뭐... 아니? 방송이라니요?? 저희 휴양지 놀러왔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지경이 된 건데요?

사유를 들어보니 현재 생방송으로 각각의 연예인들이 모여 어딘가에 숨어 찾아내면 되는 예능을 시작중인데 시작 5분만에 찾아버려서 찍을 내용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호텔에 있는 고객들에게 양해를 부탁하며 계약까지 했다고 하네요.

약속을 어겼으니 청구비가 요구될 수 있다며 PD들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곤 그냥 떠나버립니다. 완전 싸늘한 이 분위기...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보상]

청구비

ED 12. 퇴원

조건 : 눈을 떠야한다는 것에 눈을 뜬다

눈을 뜬다고 생각하니 주변이 하얗게 변하다가 서서히 풍경이 변합니다. 주변에서 뻘뻘 거리는 소리와 알코올 향이 나는 게 병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군요. 당신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습니다. 링거가 당신 옆에 매달려 있으며 당신의 주변인이 드디어 일어난 것이냐며 말을 걸어옵니다.

주변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병원에 오랫동안 혼수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온몸이 아픕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크게 다친 것은 맞았나 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이만 돌아가야죠.

[보상]

없음

ED 13. 지구로!

조건 : 세계멸망의 조건을 달성한다.

우주선 조종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대로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면서 버튼을 눌러보면 바깥에서 웅하는 큰 소리와 함께 우주선의 형태를 가진 게 벽을 부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지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진 행성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선을 타고 그것을 조종해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지구는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곳보다 나을것이라 믿고 우주를 향해 떠납니다.

[보상]

없음

ED 14. 고립

조건 : 세계멸망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

우주선 조종 장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세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건물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버려진 행성에서 지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곳마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구는 어떤 상태이기에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낸 걸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무너지는 건물 사이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보상]

없음

ED 15. 상황 종료

조건 : 바이러스의 조건을 달성했다.

백신을 발견한 순간, 수많은 좀비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바깥쪽 창문이 깨지며 헬기가 하늘에 떠 있군요. 헬기에 탄 구조원은 탐사자에게 손을 내밀니다.

손을 잡고 헬기에 탑승하면 호텔에 떨어져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멀리서 보는 이 도시는 처참하게 불타 사라진 곳과 피에 물들어 어질러진 장면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네요. 잠시 헬기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백신이 있으니 이 사태도 곧 끝나겠죠.

[보상]
없음

ED 16. 좀비 아포칼립스

조건 : 바이러스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 혹은 **5701**호의 캐리어를 확인한 후 다른 엔딩 선택지가 지정되지 않은 증거만 **4**개 미만 얻었다.

바깥의 문이 부수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어어거리는 소리와 함께 탐사자가 있는 곳에 좀비들이 들이닥칩니다. 어긋나있는 관절을 이끌며 느리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곳은 도망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일 뿐입니다.

이후 좀비들은 당신의 모든 곳을 물어대며 배고픈 배를 채웁니다. 이렇다면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하는데... 한 줌의 숨을 내쉬지도 못하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보상]
없음

ED 17. 자각몽

조건 : 꿈의 조건을 달성했다.

작은 수정구슬을 찾아내 만져보자, 엉망이던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바깥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사람들이 평범하게 돌아다니고, 바깥은 아름다운 휴양지가 보이네요. 그래요. 꿈이니깐 이것을 자각하면 뭐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잠이 깨어나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볼까요? 이번에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보상]
없음

ED 18. 무간지옥

조건 : 꿈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당탕! 바깥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발걸음이 들립니다. 조금의 시간을 두고 바로 탐사자가 있는 곳에도 오네요. 그리고 좀비는 당신을 물고 뜯고.... 이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당신은 계속 물리고 뜯기고 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물리고 뜯기고...

끝나지 않는 무간지옥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잠깐 기절하는 것 정도는 들어줄지도 모르겠네요. 끝나지 않을 고통이겠지만요.

[보상]
없음

ED 19. 우주여행

조건 :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네요. 아무것도 없는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날아가버립니다. 1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추락하기 전까진 말이죠.

[보상]
없음

ED 20. 기다려라 귀여운 PL들이 GM이 간다

조건 : 핸드아웃을 확인했다.

여러분들은... 뭐 어찌저찌 엔딩을 봅니다. 후 이 세션이 킬링 타임용이라서 다행이었지 진지하고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였음 끔찍했을 거예요. 우리 티알러의 운명은 꼭 막힌 테트리스 일정을 어떻게든 분배해서 쑤셔넣는거잖아요?

여기서 얻은 단서들이나...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금 불타고 있다고요 얼른 다음 세션을 향해 뛰어갑시다! 아이고 우리 병아리같은 PL들이 날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님! 이 기회는 나중에 갚을테니 안녕히계세요!!! (KP여러분들은 뿌듯하게 보내주는 모션 부탁드립니다)

[보상]
다회차 도전 시 탐사자가 아닌 PL이 했기에 해당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핸드아웃 선택지 제거.

ED 21. 원령

조건 : 커튼 뒤 존재에게 말을 걸거나 계속 쳐다봤다.

탐사자가 말을 걸거나 쳐다본 존재는 뻘히 탐사자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입이 찢어질 듯한 웃음을 짓더니 당신에게 입을 짹 벌리고 다가오네요. 그 입안속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흉측한 혀가 보입니다. 도망쳐야하는 생각과 다르게 발은 움직이지 않네요.

결국 피하기도 전 으적거리는 소리가 나며 세상이 암전합니다.

[보상]
없음

ED 22. 無

조건 : 57006호 바닥의 해열제를 먹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두통과 열이 찾아옵니다. 온몸이 불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펄펄 끓는 이마를 부여잡고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요?

괴로운 시간을 몇 분 보내고 지나보면 서서히 열기운과 두통이 잦아듭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까 짐을 두었던 탐사자의 방입니다. 바깥이나 창문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만 보이네요. 어라? 분명 우리 이상한 일 겪지 않았었나요? 분명 겪은 일이 없던 것이 되더니 꺼림칙하네요.

이만 밖으로 나가 휴양을 즐겨볼까요?

[보상]
없음

ED 23. 서프라이즈

조건 : 5706호의 베란다에서 무시한다.

아무말 없이 넘겨주니 상대방은 안도한 듯 작게 한숨을 쉽니다. 뭐야 이 사람...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어. 이상하게 보고 지나쳐가면 땡! 하고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주변 물건 사이로 사람들이 튀어나와 박수를 칩니다. 뭐야....

듣고보니 일반인에게 위장해서 들키지 않으면 상품을 받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탐사자가 참여하고 일정 시간내에 알아차리지 못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데 이거?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방송이었어?

[보상]
없음

ED 24. 범죄자

조건 : 5703호의 화장실에서 마약 향을 맡는다.

‘멈춰!! 경찰이다!!!’

화장실 문이 광 열리더니 경찰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닥칩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이라니 운이 좋네요. 어서 빨리 이곳에 나가 안전지대로... 어? 근데 이 사람들.. 왜 탐사자 손에 수갑을 채우는거죠?

‘마약을 소지한다고 하더니.. 진짜군. XX시 XX분, 마약소지범을 체포했다.’

이게 뭔 소리죠? 저기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말아본건데요?

무슨 말을 해도 경찰은 듣지 않고 탐사자를 끌고 가버립니다. 아니라니깐?

[보상]

형량

ED 25. 노출

조건 : 5701호의 침대의 조건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숨이 점점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곳에서 살아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사방은 스스로 막은 흔적으로 내려가기위해 뚫어도 바깥에 있는 존재와 마주쳐야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눈을 감도록 해요.

[보상]

없음

ED 26. 연명줄

조건 : 5701호의 침대의 방독면 조건만 맞췄다.

방독면이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야하는 것이죠? 통로를 찾지 못해 최상층에 갇혀 있게만 되었습니다. 방공호를 찾지 못한다면 이곳의 바리게이트를 무너트리고 나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 방독면은 이 사태에 대한 연명줄로만 남아버렸네요.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유의미할 듯합니다.

[보상]

없음

ED 27. 퇴출

조건 : 5701호의 침대의 통로 조건만 맞췄다.

위험할 쯤에 아슬하게 통로의 방공호에 도착했습니다. 방독면을 쓴 사람이 입구에 나와서 탐사자를 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나가라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방독면이 없다고 이렇게 내보낸다니... 삭막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위험이 있는 자를 받아들이기엔 무리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아쉽지만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가야할 거 같습니다. 그럼 망한 세상으로 다시 걸어갈
볼까요?

【보상】

없음

ED 28. 구사일생

조건 : 5701호의 침대의 조건을 전부 달성했다.

방독면을 끼고 통로에 도착하자 입구에 탐사자와 똑같은 것을 쓰고 있던 사람이 나와 당신을 보더니
흔쾌하게 문을 열어 맞이를 해줍니다. 안에는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식량과 식수, 그리고 필요한
장비와 함께 지루함을 풀 수 있는 보드게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있다면 사태가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는다면 버틸 수 있을거예요. 정말 죽을뻔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게 되었네요. 제대로 된 생의 연장입니다.

【보상】

없음

ED 29. 신의 축복

조건 : 새로운 방에서 전원이라는 말을 꺼냈다.

정답을 말하고 나니 문에서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가볍게 열리는 거 보입니다.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보이는 것은 멀쩡한 휴양지입니다. 시간을 보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군요. 주변을 보며 어병하게
서 있으면 컵가에 들어본 적도 없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 잘 통과해주셨기에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해당 일은 없던 것으로 지나칠 것이며 다시 이 일을 잘
넘겨주세요’

이후 전등으로 불을 끈 듯 한 번의 정전 후 다시 세상이 밝아집니다.

【보상】

직감/본능 기능치 +1D10

해당 엔딩을 볼 경우 사용감이 있는 냄비는 삭제됩니다.

해당 루트의 탐사자의 기억 소멸

ED 30. 제 4의 벽

조건 : 새로운 방에서 오답을 냈다.

뻑!!! 정답이 아닌 듯 경고음이 들리더니 문도 창문도 인형들도 전부 사라진 흰 색 벽만이 남아버립니다. 이후 벽의 한 면이 무너지더니 커다란 사람들이 손에 종이와 주사위를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당황했다기보다는 일을 수습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넣지 말자니까?’, ‘되게 우리를 뺀히 보네.’, ‘리셋하자 리셋.’ 이런 말들을 하며 어떤 버튼을 눌러 버립니다.

버튼을 누른 즉시 몸이 분해되고 정신이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기를 바랍니다.

[보상]

해당 엔딩을 볼 경우 사용감이 있는 냄비는 삭제됩니다.

해당 루트의 탐사자의 기억 소멸

ED 31. 폭발

조건 : 5703호의 냉장고 내 정체불명의 액체를 꺼낸다.

꺼내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바깥 물체에 닿거나 외부의 충격을 어느정도 받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도 사실은 별로 쓸모 없을지도 모릅니다. 폭발물이 바로 눈앞에서 터지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당신도 알겠죠?

[보상]

없음

ED 32. 사고사

조건 :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뛰어내린거죠? 이곳은 최상층보다 한 층이나 높은 곳인데 말이에요. 시원한 바람은 매섭고 날카롭게 당신을 감싸안게 되고, 당신의 몸은 아래로 내려갈 수록 무너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쿵.

[보상]

없음

ED 33. 하나이자 전부.

조건 : 옥상에서 요그소토스를 소환한다.

제물을 바치고 주문을 외치자 주변이 무너지듯 움직이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곳을 만들고 떠난자, 하나이고 전부인 자가 다시 이곳을 눈에 담아둡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시간의 초월자가 당신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SAN - 1D10/1D100]**

그리고 그것은 점점 큰 점으로 변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지나쳐버립니다.

[보상]
없음

ED 34. 위대한 업적

조건 : 해독제가 있는 상태로 키패드를 해제했다.

황폐화로 물든 이 세상을 더 이상 망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커다란 실험을 준비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거액의 돈을 받고 망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잠깐동안 왜 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 이상하네요. 이만 실험을 끝내고 돈을 받으러 가기 전, 기록에서 보았던 해독제를 마시고 나섭니다.

이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탐사자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축하하며 반겨줍니다. 이제 조금 더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찬양을 받으며.

[보상]
없음

ED 35. 위대한 희생

조건 : 해독제 없이 키패드를 해제했다.

황폐화로 물든 이 세상을 더 이상 망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커다란 실험을 준비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거액의 돈을 받고 망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잠깐동안 왜 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 이상하네요. 이만 실험을 끝내고 돈을 받으러 가면 되는데 어쩐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뭔가 더 챙겨야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을 빼먹은 거 같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니 정말 위대한 실험자료가 되겠네요. 그럼에도 임무완수이니 살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당신의 눈앞은 검게 물듭니다.

[보상]
없음

ED 36. 현실

조건 : 라벨이 없는 물통의 물을 마셨다.

라벨이 없어서 어떤 브랜드인지는 몰라도 물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물을 마실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엉망이던 세계가 점차 평범해지며 없던 사람들도 나타나는군요. 혹시 몰라 병의 라벨을 보니 치료약이라고 적혀 있는게 보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싶을때 마침 커다란 TV에서 방송을

하는군요. 전세계를 강타한 뇌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생겨 환각을 보던 환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전부 환각이었던 걸까요? 하긴 이곳은 호텔이 아닌 병원이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잘 지내면 되는 것이니 환각은 잊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만 병원 퇴원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보상]
없음

ED 37. 명계의 관리자

조건 :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추천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일자리를 추천받았다는 말을 전하게 앉아있던 사람은 잠시 자세를 고쳐잡더니 기괴하게 씩 웃습니다. ‘드디어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군’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감사자에게 쓰고 있던 모자와 옷을 건네며 ‘이곳에서 이승과 저승을 관리하며 다음에 일을 찾는 자에게 넘기기 바란다’며 홀연히 사라집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였던 걸까요. 어찌 무거운 자리를 받게된 거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쯤, 자동으로 다리가 움직이더니 의자에 털석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누군가 부르지 않는다면 절대 못 벗어나는...

[보상]
없음

ED 38. 명부에 적힌 이름

조건 :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외 다른 이야기를 한다.

말을 걸고 기다려보자, 앉아있는 사람은 표정이 딱히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화가난 듯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소용돌이에 들어가듯 꼬이며 괴물과 같은 형태를 가져갑니다.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거 같네요. 그렇게 우락부락 형태를 잃어가던 것은 ‘너희들을 데려가야겠어!!’ 하고 울부짖으며 감사자를 빨아들입니다.

빠져나오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나가보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그것의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호텔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보상]
없음

ED 39. 트루먼 쇼

조건 : 카메라 렌즈를 확인한다.

렌즈를 본 이후 창문을 보니, 바깥의 풍경이 아닌 자신이 TV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시청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것을 트루먼 쇼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전부 짜여진 쇼라니...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아차린 탐사자, 이제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재미있게 보며 일상을 지낼 것이지만, 적어도 알아차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움직여보죠.

[보상]
없음

ED 40. 식사시간

조건 : 5704호의 서랍에 가까이 몸을 댄다.

무언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 같아 서랍에 몸을 가까이 두자, 커다란 축수가 튀어나와 당신의 몸을 감싸고 강하게 쥐어버립니다. 그러곤 서랍 안으로 탐사자를 당겨버립니다. 고통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강하게 쥐어버린 순간부터 온몸이 으스러져 죽었을테니 큰 고통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후 훌륭한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보상]
없음

ED 41. 자연재해

조건 : [행운] 판정에 실패한다.

다가오던 불이 붙은 돌은 정확하게 탐사자가 있는 곳으로 날라와 떨어집니다. 창문에 먼저 부딪쳤기에 직격으로 맞는 것은 피했지만, 커다란 돌과 함께 파편으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분명 탐사자도 겨우 살아있는 정도일 겁니다. 방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창문을 보지 않았음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보상]
없음

ED 42. 바리게이트

조건 : 5706호의 라디오를 확인한 후 다른 엔딩 선택지가 지정되지 않은 증거만 4개 미만 얻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바깥을 보니 특수부대들이 호텔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보다는 처리하기 위한 듯 명령을 내리는 듯한 행위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특수요원들은 탐사자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당신이 손을 올리고 항복을 한다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해도 그들은 당신을 향해 총을 쏘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비만 있다고 한 곳에서 사람이 살아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이 이미 좀비이거나.

[보상]
없음

ED 43. 대부호의 수호자

조건 : 계약서에 달력에 본 싸인과 이름을 적는다.

계약서에 제대로 된 이름과 싸인을 적고 주변을 둘러보면 중, 어떤 사람이 구석에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구석으로 오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네요.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은 회장의 명령으로 중요한 사업 계약서를 찾아오라고 해서 온 것이라 하네요. 굳이 이런곳까지 오나 싶지만, 이곳은 뭔가 정상적인게 없으니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계약서를 보더니 싸인이 제대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며 이 중요한 걸 찾아준 대가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비밀 출구로 탐사자를 인도합니다. 어쩌다보니 대부호의 수호자가 된 거 같네요. 이만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 호텔을 떠납니다.

[보상]
없음

ED 44. 대부호의 범죄자

조건 : 계약서에 아무 싸인과 이름을 적는다.

계약서에 음... 이거면 될 거 같은 이름과 싸인을 적고 주변을 둘러보면 중, 어떤 사람이 구석에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구석으로 오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네요.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은 회장의 명령으로 중요한 사업 계약서를 찾아오라고 해서 온 것이라 하네요. 굳이 이런곳까지 오나 싶지만, 이곳은 뭔가 정상적인게 없으니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계약서를 보더니 싸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이 중요한 걸 이따구로 만들다니 끌고가서 법정에 올려버리겠다고 당신을 잡고 비밀출구로 끌고 가네요. 잠깐! 그럴 줄 몰랐단니까요?

[보상]
없음

ED 45. 완벽 범죄

조건 : 탈취제를 뿌리고 폭죽을 태웠다.

폭죽을 터트린 순간 경찰이 들어와 당신을 노려봅니다. 해당 건물은 테러리스트이 테러를 일으킨다고 하여 사람들을 최상층으로 대피시키고 테러잔당을 잡는 것이었는데 누군가 최상층을 다 막아놓아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난리가 났고, 이곳에서 탄 냄새가 나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군요. 다행이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고 탐사자에게 딱히 탄약의 냄새가 나지 않아 무사히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날 뻔한 하루였네요. 뭔가 이상하게 이야기가 끝난 거 같지만, 잘된 거겠죠?

[보상]
없음

ED 46. 테러리스트는 나?

조건 : 탈취제를 뿌리지 않고 폭죽을 태웠다.

폭죽을 터트린 순간 경찰이 들어와 당신을 노려봅니다. 해당 건물은 테러리스트이 테러를 일으킨다고 하여 사람들을 최상층으로 대피시키고 테러잔당을 잡는 것이었는데 누군가 최상층을 다 막아놓아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난리가 났고, 이곳에서 탄 냄새가 나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군요. 다행이 테러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신의 몸에서 탄약의 향이 난다며 무력 제압을 해 당신을 경찰서로 넘겨 버렸습니다.

잠깐! 저는 범인이 아닌데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상]
없음

ED 47. 좀비사태에서 살아남기

조건 : 좀비 전투에서 이겼다.

수많은 좀비떼를 하나하나 머리를 치며 살아남자, 최상층에 올라올려고 했던 좀비들을 전부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네요. 물론 아래에도 수많은 좀비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지지않고 이겼다면 뭐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휴식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상]
없음

ED 48. 아 역시 우리!

조건 : 좀비 전투에서 졌다.

좀비들과 싸우면서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너무 많았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수십명을 상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요! 무엇을 믿고 이렇게 굳 건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좀비들이 가까이 다가와 당신을 곧 물어뜯겠죠. 이미 죽었을텐데 말이죠. 역시 우리였구나...

[보상]
없음

ED 49. 폭발의 아름다움

조건 : 폭발을 일으켰다.

어떻게든 재료를 모아 폭발물을 만들고 잘 터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좁아서 폭발물을 만들면 타고 터지고... 터트린 사람에게 피해가 없을리가 없습니다. 불만이 없는 탐사자라면 하지 않는 선택을 한거죠. 거지같은 세상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후는 난 죽었으니 어떻게든 될 것이라 믿고 넘겨버립시다.

[보상]
없음

ED 50. 역전승

조건 : 5709호의 책장을 자세히 봤다.

방 안을 둘러보고 있으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운폴 호텔에는 숨겨진 대부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총기를 비밀장소에 보관했다는 사실ைய요. 이것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납니다. 못 싸도 개틀링 건이 있다면 사실 뭐든 할 수 있을 거 같잖아요. 이만 좀비들과 싸우러 나가봅니다.

[보상]
없음

ED 51. 원숭이 손

조건 : 마법진에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빈다.

제물을 올리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자 마법진이 붉게 물들더니 가운데에 둔 제물을 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보이군요. 당신은 어떠한 소원을 빌었을까요? 커다란 소원이든, 가벼운 소원이든 제물을 받은 대상은 그만한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다만 기억해두세요. 모든 소원이 좋게만은 오지 않는다는 걸.

[보상]
없음

ED 52. 오메데토

조건 : 엔딩 50개를 본다. (엔딩 본 직후 바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엔딩을 50개나 보셨다니 축하드립니다.이것은 그 엔딩을 본 당신을 위한 엔딩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시나리오(시나리오의 비하 의미가 아닙니다)를 보셨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이후 다른 시나리오도 잘 부탁드립니다...

@Laspberry__TRPG로 자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https://s1.blackdesertm.com/KR/FORUM/BDM/Upload/Board/2acf2bd094720200607003326619.gif>) < 시나리오 세션때 쓰세요.

[보상]

원하신다면... 자랑을 꼭.

시나리오 종료 후 재플레이 할 경우.

하지만...

이대로 끝을 낼까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END / REDO]

END END END. ???(시나리오 플레이 수만큼 숫자를 기입해주세요.)

조건 : 재플레이가 될 때, **END**를 선택했다.

이대로 끝을 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끝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이번 차원에서만 끝이 난 것이니 다른 차원에 있는 당신에게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의 존재이지만, 여러 명으로 나뉜 존재이니깐요.

[보상]

다른 차원의 탐사자

❖ 후기

작년 8월... 꿈에서 최상층 호텔에 갇혀서 온 문을 닫고 허겁지겁 생존하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매일 없어서.... 주구장창 긴거 써두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서요.... 즐겁게 즐겨주세요.

↑ 분명 3월에 이 소리를 적어두고 기막이나 막힘 없이 해볼려고 하니 지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Q.엔딩 숫자가 왜이리 와리가리한가요?

A. 쓰다보니 가끔 저도 원가에 끌려갑니다.

Q.엔딩 수를 다 해보면 원가 주시나요?

A. 이런 시나리오에... 그런 노력을? 네... 디엠으로 와 주시면 소장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Q.이거 엔딩이 PL이 황당하네 저벅저벅하고 가는 게 아닌가요?

A. 그것이 목표입니다. 30분만에 보기 위해선. 2인은 합의하고 하느라 30분은 무리라
생각이 들어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만 더 빠르게 끝날 거 같음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해당 시나리오 브금으로는 회색도시 2 OST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회색도시 많이해주세요...

시나리오 테플을 해주신 니킴 초ㅎ님 저ㄱ님(혼자 75분동안 10엔딩봤습니다.)
감사합니다!